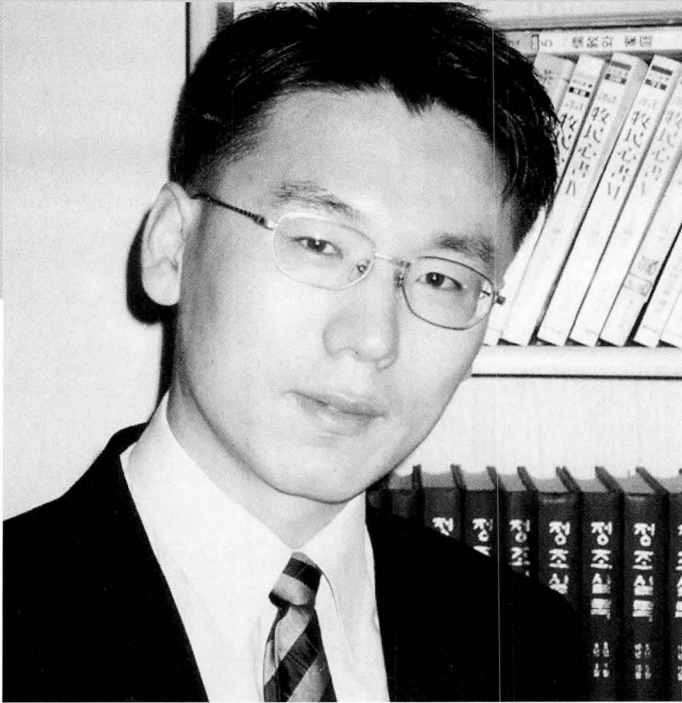


개혁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만 '비운의 정치가' 정조

《정치가 정조》 펴낸 박현모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박현모씨(36)가 《정치가 정조》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도덕군주' '학자군주'로 칭송받아온 정조를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이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적들과 싸우고 협상하는 '현실 정치가'"의 모습으로 되살려냈다.

'내재적 독해'에 의거해 정조의 리더십 분석해

이 책은 궁극적으로 정조의 개혁 추진 방식과 그가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이상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정조와 정조시대 연구자들이 '국왕은 운명적으로 현실 정치가'라는 당연한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르네상스'를 일군 정조의 리더십에 '비판적 칼날'을 들이대기 위해 《정조실록》을 살살이 뒤져야 했다. 이 책이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만큼, 논문을 준비하던 1996년부터 어렵잡아 6년여 동안 《정조실록》을 독파한 셈이다.

"실록은 사건의 전개가 무질서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제를 찾고 이를 체계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정조시대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먼저 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사료에 대한 해석이 가해지지 않은 실록이라는 일차 자료에 주목했죠. 실록을 먼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일견 '무지막지'해 보이는 이 방법은 오히려 기존의 연구와 확연히 구별되는 논문을 만들어줬다.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사료를

이 책은 '내재적 독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그동안 '칭송일변도'로 평가돼온 정조를 실패한 '현실 정치가'로 재조명하고 있다. 박현모씨는 정조가 "개혁의 준비만 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가"요, 좀더 과감한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정치가"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정조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당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읽는 작업은 힘들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선입견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감식안'을 키울 수 있었다. 또 그가 이토록 《정조실록》에 매달린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내재적 독해'란 독특한 역사해석 방법론을 이 책을 통해 실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를 위해 당시에 기록된 용어에 주목했다. 특히 '말의 정치가'로 불릴 만큼 다변(多辯)이었던, 정조가 쏟아낸 말들을 중심으로 그의 고민과 생각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그동안의 역사연구는 크게 두가지 접근법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습니다. 하나는 인물 중심의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중심의 접근법이죠. 하지만 저는 논쟁 중심의 접근이야말로 당시의 상황, 특히 정치상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통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용어는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과 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재적 독해'에 의거해 그는 정조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어로 '성왕'과 '경장'이란 두 용어를 도출해냈다. 그에 따르면, '성왕론'은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신하 중심의 정치론, 즉 봉당정치의 부정이었다고,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에 대한 요구였다." 또한 '경장'은 "잘 못된 관행이나 법·제도를 바꾸어서(更) 그 혜택을 백성에게 배분다(張)는 적극적인 개념"이었다. 이는 정조 개혁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일 것이다.

당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개혁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해

이 책은 정조의 개혁정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결론부터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정조는 "개혁의 준비만 하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가"요, 좀더 과감한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정치가"다.

"탁월한 정치가는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한편, 양자의 접이지대에서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죠. 이 점에 비춰볼 때 정조는 '바람직한 것'

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가능한 것' 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정조 특유의 과도한 조심성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단지 개혁에 실패한 정치가의 모습만은 아니다. 그는 정조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힘겨운 '격동의 시대' 였는지 암묵리에 시사한다. 실제로 정조의 재임기간은 천주교의 유입을 필두로 한 서구 문명과의 충돌이 시작된 때였고, 선조 때부터 이어져온 붕당정치의 폐해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붕당정치의 폐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권도론'에 입각한 정조의 개혁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붕당, 곧 공론정치에 대해서 지극히 비

관적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 즉 생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당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죠.”

그는 이를 두고 “당쟁에 대한 정신적 외상”이라 설명한다. 결국 정조는 유년시절의 상흔으로 인해 치명적인 정치적 한계를 맞아야 했던 '비운의 정치가'인 셈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흔은 불행히도 현실 정치에서 개혁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왕권강화와 붕당정치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움츠러

든' 정조가 양사와 홍문관의 언론을 주도하는 이조전랑을 국왕의 통제 아래 둬으로써 공론정치를 붕괴시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 부분에서도 냉정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른다.

정치가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정조의 개인적 체험은 인정하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발전해온 정치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결국 정조의 '정치적 안목의 한계'입니다. 정조는 붕당간의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다른 한편으론 정조의 '선생 기질'도 문제죠. 즉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 때문에 붕당의 정책비판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습니다.”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정조를 택한 동기는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석사논문을 쓰면서 공부한 막스 베버의 '정치가론' 이고, 다른 하나는 박사과정에서 주목한 '국왕의 존재론' 이다. 정치가론에 대한 관심은

그 후에도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치성: 소포클레스의 정치적 조건> 등의 논문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그가 꾸준히 연구해온 정치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사과정 때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국왕은 왕조체제의 상징적 존재일 뿐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라는 점을 주목하게 됐죠. 특히 정조의 경우는 그의 성장과정이나 개혁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에 급변하는 정국을 보면서 아주 매력적인 국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서자나 아전 같은 중인계층이 신분상승 운동을 추진한 18세기 후반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정조와 정조시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였습니다.”

그는 요즘 전통적인 대외관계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정치사상사'와 '한국 대외관계사'를 강의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텍스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어떻게' '왜' 라는 방법론으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조명해보기 위해서다. 또 '정조 사후 63년: 세도정치기의 정치운영방식과 대외관계의 변화'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조시대 이후의 정치사에 정조가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옥순 기자

정조의 개혁정치가 남긴 역사학적 의미

이 책을 읽다보면 2백여년 전의 정조시대와 지금의 정치 현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조시대가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른바 정보화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다. 정조가 오랜 이념적 시비논쟁을 끝내고 화합과 대동의 정치(蕩平)를 지향했던 것처럼 현재의 정부가 이데올로기의 대립 대신 민족화합과 통일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정치가 정조'를 '반면교사'로 삼아 배워야 할 것은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정치가 정조'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신분과 붕당,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 점이다.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싱크탱크'를 활용해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정책을 개발하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박사실업자들'을 모아 우리의 전통사상 및 문화를 연구하게 하고, 주요한 국가정책을 사심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정조의 '중흥정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정치가 정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인간 정조'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조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학자로서의 품모다. 또 다른 매력이라면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외유내강'형의 성격을 들 수 있겠다. 바로 이 점이 정약용, 박지원 등 젊은 학자는 물론, 그의 정치적 노선에 반대했던 김종수 같은 인물조차 '협력자'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다.”



푸른역사/A5신/436면/18,000원